

CDI 세미나 2015-45

지역경제를 이끄는 맞춤형 인적자본투자 정책방향 모색

2015. 5. 8(금)

지역경제를 이끄는 맞춤형 인적자본투자 정책방향 모색

1. 개최 개요

- 개최목적 : 충남 지여인재 육성방안
- 일 시 : 2015년 5월 8일(금요일), 10:00~13:00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3층), 충남 공주
- 참 석 자 : 10명
 - 김양중 박사(충남연), 최병학 박사(충남연), 황학수 주무관(충남도청), 박상옥 교수(공주대), 정원기 소장(충남일자리종합센터), 장종남 선임연구원(충남테크노파크), 김현진 부장(중소기업진흥공단) 외 3명

2. 회의 진행 및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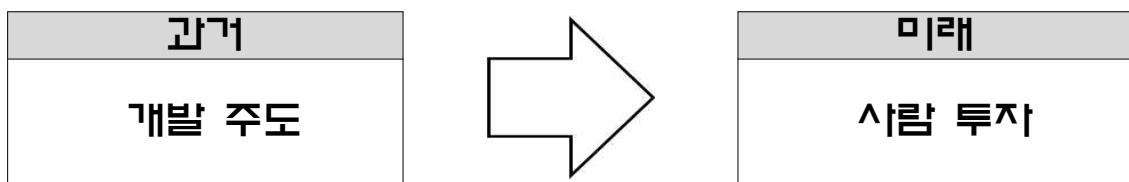
- 본 회의는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에 의해 진행(브레인스토밍 형태의 워크숍)

3. 시간계획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05	'05	개회 및 취지 설명	-
10:05~10:30	'25	인재육성분야 발표	김양중
10:30~12:00	'90	자유 토론 및 자문	라운드테이블 형태 공동논의
12:00~13:00	'60	오찬	

충남 지역인재 육성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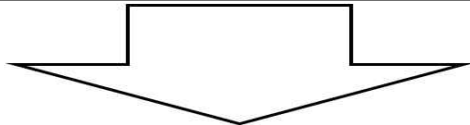
1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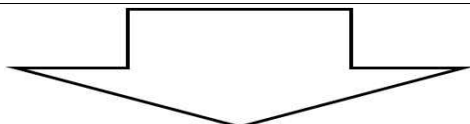
- 당장의 개발 중심에서 사람투자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
- 전통적인 지역 개발방식에서 주민의 역량 개발이라 사람 키우기 전략이 새로운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음
- 과거 개발주도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사람 투자 전략으로 방향 전환

② 생애주기별 교육여건 진단

구 분	문 제 점
아동·청소년	① 아동·청소년(5~14세) 인구의 감소 - 1990년 36.5만→2010년 23.6만→2030년 20.6만명 ② 학령기인구(5세~14세)의 지역 외 유출 심화 - 1982년 이후 2014년까지 충남의 폐교 학교수는 2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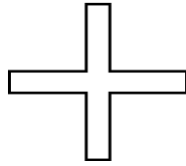
청년인재	① 지역대졸자의 노동시장 경쟁력 취약(낮은 대학 위상) - 충남 내 국립대인 공주대학교 조차 40위권에 들지 못함 - 토익 평균성적은 640.16으로 점으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 ② 지역인재(대학졸업생)의 지역 외 유출 심화 - 충남 대졸자의 자기지역 취업률은 23.6%로 전국 최하위 ③ 실업률 대비 높은 청년 실업률 - 충남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8.3%로 충남 전체실업률인 3.4%보다 매우 높은 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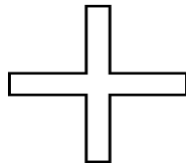
평생교육	① 베이비부머세대 급증 - 1990년 22.0만 명→2010년 26.0만 명→2030년 34.4만명 ② 저조한 평생학습 참여율 - 전국 평균(35.6%) 대비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16.1%) ③ 평생교육시설 지역간 편차 - 지역 간 최대 9배 차이(천안시 72개소 / 청양군 8개소)
------	---

③ 정책방향 및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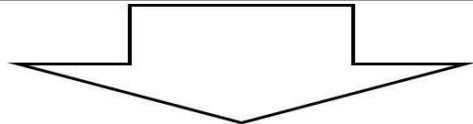
특성화 교육을 통한 마중·청소년의 교육역량 강화		
전략 ①	전략 ②	전략 ③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시스템 내실화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초·중·고 글로벌 역량강화



지역 대학졸업 인재의 선순환 구조 정착		
전략 ①	전략 ②	전략 ③
구인, 구직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	지역맞춤형 (지역 기업연계) 청년 인재 양성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도민의 행복한 평생교육 체계 구축		
전략 ①	전략 ②	전략 ③
베이비부머 세대 사회 재진입 역량강화	시니어 행복교육 지원	도민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기대효과		
효과 ①	효과 ②	효과 ③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	인재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평생학습생태계 정착

1. 인재의 선순환 구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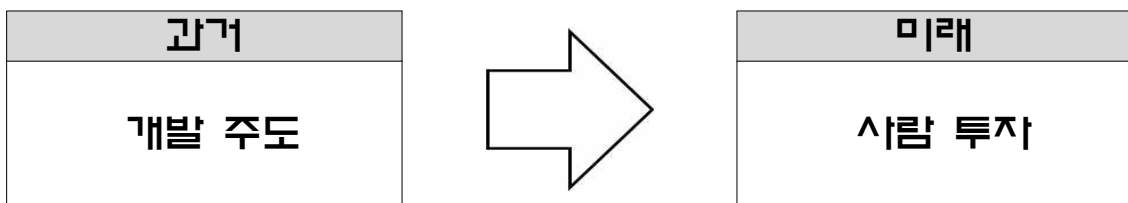
- 전통적인 지역 개발방식에서 주민의 역량 개발이라 사람 키우기 전략이 새로운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음(양병찬 외, 2013)

- ▶ 사회투자론, 인적자원개발론, 인간개발론, 사회적 자본론 입장에서
 - P. Drucker, 1993. 오늘날 교육은 가장 진보된 투자로 여겨지고 있다. 투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생산성은 높아지고 수익도 증대된다.
 - A. Giddens, 1998. 사회투자론의 입장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소득의 재분배가 아닌 ‘기회의 재분배’이며, 인간 역량 및 삶의 기능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경쟁력 확보와 개개인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 OECD, 2004 사회 통합 이슈와 관련하여 유아교육, 보육, 평생교육이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료: 충남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평생교육 종합계획, 2013

- 따라서 지역인재의 육성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필요
- 과거 개발주도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사람 투자 전략으로 방향 전환

<표 5>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현황 및 문제점 파악

1) 아동·청소년

①	②	③
아동·청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	학령기인구(5세~14세)의 지역 외 유출 심화	

□ 아동·청소년 인구감소

□ 5세 이상~14세 아동·청소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

<표 6> 아동·청소년 인구추세

(단위: 명)

	5-9세	10-14세	계
1990	167,912	196,859	364,771
2000	131,385	119,872	251,257
2010	105,592	130,367	235,959
2020	100,864	98,409	199,273
2030	103,334	103,004	206,338

자료: 통계청/kosis/연령별(시도)추계인구

○ 충남의 5~14세 인구는 1990년 36.5만 명에서 2010년 23.6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30년 20.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여겨짐

○ 아동·청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 인프라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② 학령기 인구의 역외 유출

☐ 취약한 지역 교육여건으로 인한 학령기 인구의 역외 유출

- 초중고등학교만 살펴볼 때, 충남의 학교 수는 738개교로 전국 학교 수(11,319개교)의 6.3%를 차지함
- 1982년 이후 2014년까지 충남의 폐교 학교수는 249개로 이는 학령층 인구의 감소도 있지만 학령기 인구의 역외 유출도 기인

< 표 7 > 1982년 이후 시도별 폐교 현황(2014.6.30일 기준)

(단위:개)

시도	폐교 학교수 (1982년 이후)	시도	폐교 학교수 (1982년 이후)
합계	3,595	강원	436
서울	1	충북	231
부산	30	충남	249
대구	28	전북	321
인천	53	전남	789
광주	14	경북	660
대전	8	경남	540
울산	22	제주	32
경기	170	세종	11

자료: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21261>

2) 청년(대졸 취업자)

①	②	③
지역 대졸자의 노동시장 경쟁력 취약	지역민재의 지역 외 유출 심화	실업자 대비 높은 청년 실업률

☐ 지역 대졸자의 노동시장 경쟁력 취약

☐ 충남 내 20위권 대학부재

- 중앙일보 대학평가(2014)에 따르면 충남 내에 20위권 대학이 전무
 - 충남은 한국기술교육대만이 30위에 위치하고 있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1991년 노동부가 전액 정부출연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대학인 점을 생각하면 일반 종합대학으로는 40위 권에 전무

※ 충남 내 국립대인 공주대학교조차 40위권에 들지 못함

<표 9>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	대학	순위	대학
1	POSTECH	16	아주대
2	한국과학기술원	17	한양대(ERICA)
3	성균관대	18	부산대
4	고려대(안암)	19	한국외대
5	서울대	20	서울과학기술대
6	연세대(서울)	21	경북대
7	한양대(서울)	22	전북대
8	중앙대(서울)	23	국민대
9	서강대	24	한국기술교육대
10	경희대	25	전남대
11	동국대(서울)	26	가톨릭대
12	이화여대	27	충남대
13	건국대(서울)	28	세종대
14	인하대	29	영남대
15	서울시립대	30	송실대

자료: 중앙일보 대학평가(2014)

- 충남의 경제규모가 세종특별시 포함 17개의 시도 중 3위인 점에 비하면 지역 대학의 위상은 지역의 위상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졸자의 낮은 노동시장 경쟁력

- 토익성적이 지역 대졸자의 노동시장 경쟁력을 전부 대변할 수는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평가지표로 볼 수 있음
 - 충남 2014년 토익 평균성적은 640.16으로 점으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

<표 10> 2015년 3월 지역별 토익평균 점수

지역	비율	평균		
		TOTAL	LC	RC
강원	1.72	630.90	359.52	271.38
경기	21.18	699.59	393.10	306.50
경남	3.98	644.30	369.72	274.58
경북	2.61	642.09	366.51	275.58
광주	3.60	666.24	376.30	289.94
대구	5.58	677.45	382.23	295.23
대전	4.40	676.82	380.71	296.11
부산	8.12	684.28	386.43	297.85
서울	33.67	742.08	410.28	331.81
울산	1.90	677.89	385.14	292.75
인천	4.86	682.21	384.26	297.95
전남	1.06	647.31	368.16	279.15
전북	2.33	665.60	377.58	288.02
제주	0.60	666.38	372.60	293.78
충남	2.48	640.16	364.88	275.27
충북	1.93	653.62	370.82	282.81

자료: <http://exam.ybmsisa.com/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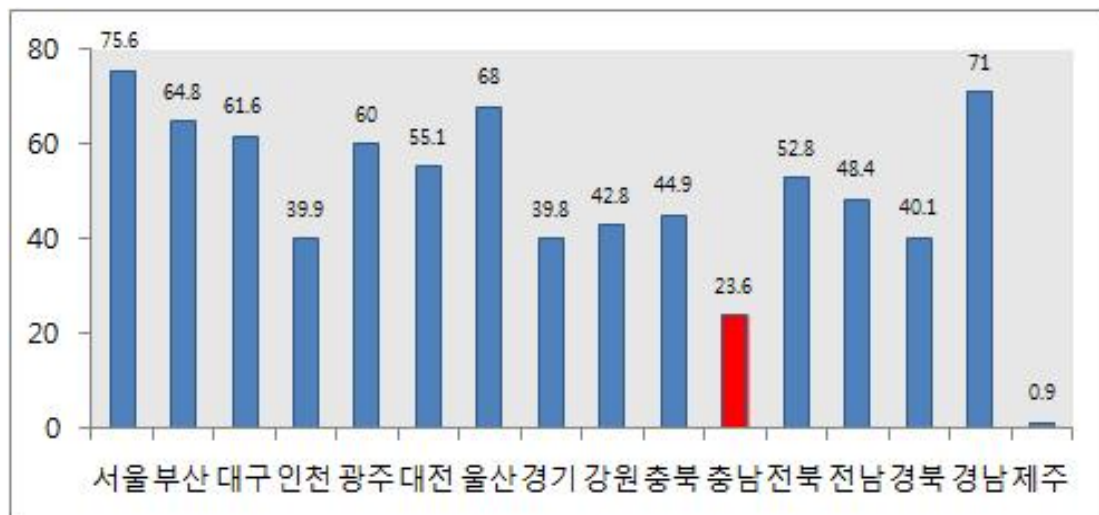
○ 따라서 충남은 지역 교육 수준을 높이고 지역 내 취업률을 높여가야 함

2 지역인재의 지역 외 유출심화

○ 2008년 기준 충남 대졸자의 자გი지역 취업률은 23.6%로 전국 최하위

[그림 6] 지역 대학 졸업생의 자გი지역 취업률

(단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분석자료집(2008)

- 특히 지역 내 취업 비율이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35.7%인데 반해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9.6%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지역 내 젊은 층의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양병찬 외, 2013)

③ 실업률 대비 높은 청년 실업률

- 충남의 실업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충남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8.3%로 충남 전체 실업률인 3.4%보다 매우 높은 편
- 이처럼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반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인력 충원은 쉽지 않음
- 따라서 구인, 구직 간 정보의 미스매칭 해소를 통해 청년 실업률을 점차 줄여나가야 함

<표 11> 2014년 시도별 실업률

(단위: %)

시도별	전체	청년(15-29세)
계	3.5	9.0
서울특별시	4.5	10.3
부산광역시	3.8	9.0
대구광역시	3.9	11.4
인천광역시	4.7	12.1
광주광역시	2.8	6.8
대전광역시	3.4	7.7
울산광역시	2.7	8.0
경기도	3.4	8.3
강원도	3.1	10.2
충청북도	3.0	8.8
충청남도	3.4	8.3
전라북도	2.5	6.5
전라남도	2.9	10.0
경상북도	2.9	7.7
경상남도	2.5	6.9
제주도	2.0	6.1

자료: 통계청/kosis/경제활동인구조사

3) 베이비부머 및 평생교육

①	②	③
베이비부머세대 높은 인구 증가율	취약한 평생교육 매진	평생교육 시설 지역간 편차가 심함

□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 증가율

□ 50~59세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의 높은 증가율

- 4050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사회 재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기회 마련 필요
- 현재 전체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으며,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은퇴가 본격화 될 전망(양병찬 외, 2013)
-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다수가 퇴직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사회참여, 전직지원서비스 등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은 미흡(양병찬 외, 2013)

<표 13>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추세

(단위: 명)

	50-54세	55-59세	계
1990	114,598	104,938	219,536
2000	96,383	92,285	188,668
2010	147,040	112,710	259,750
2020	165,661	169,573	335,234
2030	162,845	181,060	343,905

자료: 통계청/kosis/연령별(시도)추계인구

- 충남의 50~54세 인구는 1990년 22.0만 명에서 2010년 26.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 34.4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여겨짐
-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격한 증가와 그들의 은퇴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미비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 요인이 됨

② 저조한 평생교육 참여율

□ 전국 평균(35.6%) 대비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16.1%)

<표 14> 평생학습 참여현황 분석

(단위: %)

구 분	빈 도	비 율
참여경험 있다	338	16.1
참여경험 없다	1,755	83.9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2). 충청남도 평생교육실태 분석 및 주민요구조사 연구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2)이 2,102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생교육 수요조사에 따르면
- 충남 도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참여 경험이 ‘있다’가 338명(16.1%)으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17,55명(83.9%)이 응답하여 평생교육 참여율이 전국(35.6%)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양병찬 외, 2013)
- 도민의 삶(일-학습-여가)과 연계된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마련 필요

③ 평생교육시설 지역간 편차

□ 평생교육시설이 서·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격차 가 심함

- 유형별 학습시설은 총 457개소, 지역 간 최대 9배 차이(천안시 72개소 / 청양군 8개소)
 - 전용시설은 대학이 22개소, 시·군 5개소, 교육청이 4개소를 운영 중이며, 전체평생 학습시설의 6.8% 차지함
 - 일반시설로 분리된 평생학습 시설은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시설 등이 포함되며, 전체 시설의 61.1% 차지함
 - 그 밖의 시설로는 교육청 등록 및 신고시설(83개소, 18.2%), 직업훈련기관 道지정 64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양병찬 외, 2013)

3. 국내·외 지원정책 현황

1 대내외 인재육성의 패러다임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민선5기 전반기) : 창의적 인재, 봉사적 인재, 윤리적 인재, 글로벌 인재
- 서울시(민선5기 후반기) : 더불어 사는 희망공동체 서울을 위한 : 시민의, 현장의, 소통의 인재
- 대전시: 대전의 가치를 창출하는 열린 인재 - 자기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인재, 조직공동체와 소통하는 열린 인재, 부서 내·외 소통·협력·배려를 실천하는인재,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인재, 세계 정서를 이해하는 열린 인재
- 울산시: 세계 속의 리더 울산인재 - 창의적 인재(창의인), 열정적 인재(열정인), 참 인재(사회인), 전문 인재(전문인), 글로벌 인재(국제인)
- 경기도: Global 열린 인재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적인 인재,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균형감각을 갖춘 인재,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업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인 인재
- 강원도: 21세기를 선도하는 최고의 강원인재 - 창의적 인재, 윤리적 인재, 전문적 인재, 역동적 인재, 글로벌 인재
- 제주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신뢰와 화합의 지역문화 형성, 외국어 능력을 갖춘 세계화 핵심인재

○ 국내 공기업·민간기업

- 한국전력공사: 열정과 실행력을 갖춘 Global Right People - 열정과 행동의 실천인, 창의로 진화하는 전문인, 더불어 발전하는 협력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세계인, 창조인, 조직인, 자주인, 전문인
- 지식경제공무원 교육원: 지식인, 활력인, 개방인, 협력인, 혁신인
- 삼성전자: 창의적 인재, 도전적 인재, Global 인재, 전문인재
- 현대자동차: 도전, 창의, 열정, 협력, 글로벌 마인드

○ 국외 공공조직

- 영국 런던시: 리더십, 책임, 협동, 공평, 성실
- 일본 도쿄도: 유능하고 의욕적인 인재

<국내외 인재상의 개괄적 특징>

- ▶ 직급별 역할과 이에 기반한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상 노력
- ▶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는 도전 정신과 글로벌 마인드 요구
- ▶ 전문가형 지식의 강조로부터 소통과 화합, 협력의 중시로 변화되는 추세

4. 충남도 지원정책

1) 추진 기반 구축

① 교육 관련 조례 및 규정 제정

○ 충남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1.3)

- 목적 : 도와 교육청 간의 교육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충남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으나, 충남도의 전체 교육에 대한 발전을 구상하는 협의회로 설치 목적을 확대함
- 구성 : 당연직 8명(도청 4명, 교육청 4명) 및 위촉직 8명(도의원 2명, 학부모 대표 2명, 교원단체 2명, 교육전문가 2명)
- 기능 : 도와 교육청간 협력에 관한 사항, 도 교육발전의 방향 및 정책 제안, 그 밖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부응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평생교육진흥조례 및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규정 제정

- 평생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충남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조례(2008. 10. 30)를 제정하였으며, 내용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목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임
- 또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거하여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규정(훈령 제 1276호)을 제정하였으며(2011. 12. 30), 이에 근거하여 2012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산하에 설치·운영하고 있음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1999. 12)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은 기존의 장학회와 학생기숙사를 통합하여 인재육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 조례의 내용은 재단의 목적, 사업범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임. 이를 근거로 2012년 2월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이 출범하였음

[2] 교육 관련 전담 조직 설치

- 도청 전담부서 : 교육법무담당관(학교교육 + 평생교육)
 - 도청 내 교육 관련 전담 부서는 기획관리실에 교육법무담당관이 있음. 세부적으로 교육협력계와 평생교육계가 함께 있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 현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원장 1사무처장, 3팀(정책기획팀, 교육연수팀, 정보관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책기획팀은 평생교육 전략 수립, 평생학습기관 컨설팅, 협의회 등 운영 및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연수팀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등을 담당하고있음. 정보관리팀은 다모아정보망 운영, 학습계좌제, 네트워크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은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과 학사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은 이사장, 이사회, 감사, 상임이사, 사무국, 대외협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5. 정책방향 및 전략

1) 정책방향

① **특성화 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학습·문화 역량 강화**

☐ 전략①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시스템 구축**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력 제고
- 가정·지역사회·학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 아동·청소년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창의·인성 강화를 위한 체험활동, 체계적인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개발
 - 정규 교육과정보다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고리를 강화

☐ 전략②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지역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 공교육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교과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장공모, 초빙교사, 야외체험, 학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

☐ 전략③ **초·중·고 글로벌 역량강화**

- 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에 애향심을 갖고 지역에서 주최하는 국제사업, 다문화사업에 참여
- 방과후 원어민 영어학교 사업(교육청 주관) 및 방과후 중국어학교·중국어캠프 사업(도 주관)과 연계하여 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 강화

2 지역대중 인재의 선순환 구조 정책

□ 전략① 국민, 구직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

- 지역 내 일자리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및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통한 지역인재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적극적인 일자리발굴과 매칭서비스로 지역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
 -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정착 기여

□ 전략② 지역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

- 지역 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계 현장수요에 부응과 청년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
 -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정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청년 인력양성 추진으로 도내 청년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
 - 실무위주 실습과 현장적응력 배양을 통한 단계별 맞춤 교육통한 도내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 증가 및 실업을 해소에 기여
- 구직에서 창직으로의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변화 시도를 통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도내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기반을 확충
 - 우수한 청년 유망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창출 유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서비스를 강화
 - 창업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육성 및 SW, 콘텐츠, IT 등 충남도 전략산업 육성기여와 지역 신규 일자리창출 및 신규창업활성화

□ 전략③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 특성화고·대학교-기업 간 실질적 협력적 관계 구축(취업 연계)하여 지역학생 고용촉진, 인재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도민의 행복한 평생교육 체계 구축

□ 전략① 베이비부머 세대 역량강화

○ 노후 및 은퇴설계 교육지원

-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은퇴와 창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본 자질 향상과 함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통해 앞으로 노후설계에 있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행복한 노후 준비를 지원

○ 사회 재참여 및 교육기부 지원

- 교육을 통한 재취업 인식변화와 동기부여 →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가진단, 역량분석으로 재취업 전략 수립 → 협력 기관을 통한 인턴십 체험 → 컨설팅을 통한 직업 매칭

□ 전략② 시니어 행복교육 지원

○ 시니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소외되어가는 노인의 행복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정서·건강·문화·예술 교육 및 노인들의 기초생활 역량 강화
- 급변하는 시대의 노인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교육과정 개발, 모듈화하여 보급
- 교육 후 사회 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기부, 학습동아리, 상담 지원 등의 활동 병행

○ 지역 대학 연계 U3A(University of Third Age) 운영

- 인생의 3기를 맞은 시니어들의 재능기부 활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시니어 단체 대상 공모사업을 통한 충남 지혜로운 인생학교를 운영

▶ U3A(University of Third Age)란

- 영국의 전국적인 학습 조직으로, 2011년 기준 영국 내 840여 개의 U3A가 설립되었으며, 회원은 약 275,000명에 이릅니다. 배움을 목적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 배우고 동시에 서로 가르치는 순환적 학습의 장으로서 일종의 학습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음
- 특징 : U3A에는 교수가 없음. 회원들이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회원들 중 각 부문의 전문가가 강사(coordinator) 역할을 하며, 각 지역의 U3A는 지역 내 기반을 두고, 프로그램과 재정 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됨

자료: 충남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평생교육 종합계획(2013)

□ 전략③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 농어촌 주민 대상 평생교육 지원

- 농촌의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운영 교육과정 및 농한기를 이용한 집중 운영 교육과정 병행
- 농촌 주민 대상 문화·여가, 건강 증진, 노후준비, 생활환경 정비 프로그램 보급

○ 마을 아카데미 추진

- 일반 주민의 정주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학,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 행복도민대학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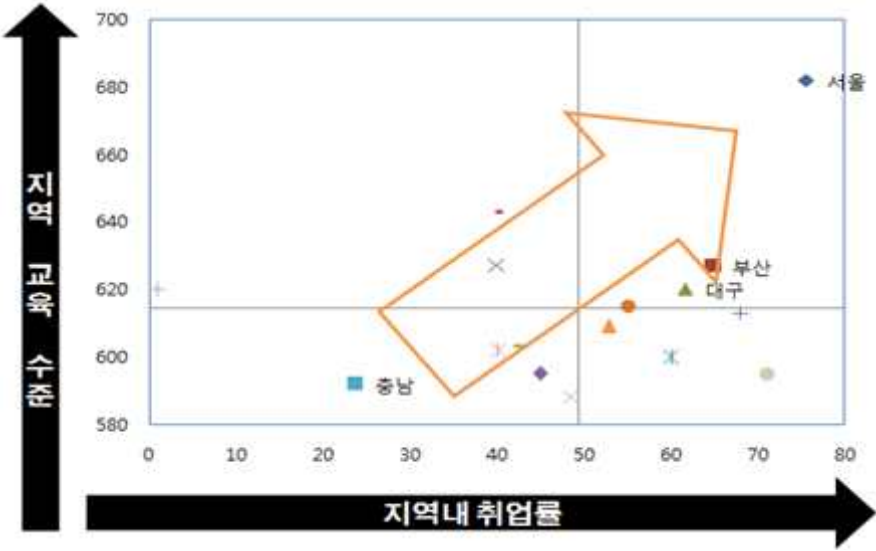
- 학습의 결과가 지역에서 인정되고, 활용될 수 있는 체제 구축
- 도민의 삶(일-학습-여가)과 연계된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마련으로 평생학습 참여율 향상

○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거점 평생교육시설 설치·확보 및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도 내·외 평생교육 관련 주체들의 횡적·종적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

부록: 충남 지역인재 육성 방향

[그림 7] 충남 지역인재 육성방향



아이디어 발굴

충남 혁신학교(행복 나눔학교) (유초중고)

○ 충남행복공감학교→충남행복나눔학교로 전환(충남도 매칭 없음)

○ 충청남도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정책은?

ex) 작은학교 살리기(완주 삼우초등학교, 아산 거산초등학교, 성남 남한산 초등학교)

- 충청남도내 136개(초등 117개, 중등 19개) 50인 이하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2015년 제정

교육감은 학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예산과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행정 지원과 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역 발전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학교의 자율화와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

- 마을과 학부형, 학교가 교육 공동체를 형성

지역 밀착형 청년인재 육성 (대학)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희망이음 프로젝트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

○ 기존사업 내실화 방안이나 신규사업은?

충남형'취·창업 지원체제(WEL-Center) 구축 사업

○ 개 요

- 지역인재 취업·창업기회 확대를 위한 (가칭)웰-센터(WEL-Center)를 설치, 청년 취·창업 및 은퇴예정자가 자신들이 체험한 직무경험을 후진들이 공유,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
- 웰-센터는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구직자들이 직무분야 전문가로부터 직업(직무)에 관한 실무경험을 직접 배우고 익히는 학습센터로 운영하는 모델, 웰-센터는 각 지자체의 직영시설(시청, 구청, 문화센터, 도서관, 평생교육관 등), 고객의 접근이 용이한 공간 및 대학의 여유 공간 등에 설치.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 및 대학생들에게 직업(직무)관련 정보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
- 웰-센터 설치를 통해 지식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창조적 '직업체험학습시스템' 구축으로 합리적 진로선택, 직업과 학습의 양립, 청년실업해소, 베이비부머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충남형 취/창업 지원체제가 구축될 것임

[그림] 웰-센터 운영체제 기본구상



○ 이와 같은 센터의 구축이 필요한가? 그 효과는?

○ 시니어들을 위한 지역 대학 연계 U3A(University of Third Age) 운영

참고자료

양병찬 외(2013), 충남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평생교육 종합계획,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홍영란 외(2012),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 대학 및 기업의 파
트너쉽 구축 연구